

□ 2005년도 국가교통센서스 중 여객부문 기종점통행량(O/D) 조사의 주요 항목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- 전국 시외유출입차량 통행특성조사의 결과 중 평일 차종 구성비를 살펴보면 승용차(일반형 승용차 43.13%, 다목적 승용차 18.42%)의 구성비가 61.55%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, 버스의 경우 전체의 11.57%를 차지하고 있다. 주말의 경우 승용차(일반형 승용차 51.22%, 다목적 승용차 22.71%)가 전체의 73.93%를 차지하고 있으며, 화물차가 13.02%, 버스는 9.56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시외유출입차량 통행특성 중 평일의 경우 통행목적 분포를 살펴보면 업무통행이 29.12%로 가장 많고, 다음이 귀가(21.51%), 기타(20.10%), 출근(15.29%) 순으로 나타났다. 여객교통시설이용자 통행실태조사의 경우 귀가통행이 36.19%로 가장 많고, 다음이 기타(19.43%), 업무(14.32%), 친지방문(12.79%)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.
- 반면 시외유출입차량의 주말특성의 경우는 귀가통행이 34.18%로 가장 많으며, 기타(24.88%), 여가(17.99%), 친지방문(12.17%)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. 또한 여객교통시설이용자의 경우 귀가통행이 43.15%, 기타(21.36%), 친지방문(13.72%), 여가(9.73%)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.
- 전국 시외유출입차량 통행특성조사 결과 평일의 경우 평균 재차인원은 1.55(인/대)로 조사되었다. 특히 나홀로 차량이 전체 차량의 61.69%를 차지하고 있다. 주말의 경우 평균 재차인원은 2.28(인/대)로 평일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, 이중 나홀로 차량의

비율은 30.30%로 나타났다.

□ 2005년 국가교통센서스 중 화물부문 기종점통행량(O/D) 조사의 주요 항목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- 조사대상 전체 화물차의 **평균적재율¹⁾**은 72.91%로 기존(2001년) 조사에 비하여 7.91% 증가하였다. 이중 비사업용 화물차의 평균적재율은 2001년 63.0%에서 2005년 71.98%로 8.98%p 증가하였으나, 반면 사업용 화물차의 평균적재율은 2001년 83.5%에서 2005년 80.84%로 2.66% 감소하였다.
- 조사대상 전체 화물차의 **적재효율²⁾**은 44.08%로 기존(2001년) 조사에 비하여 7.98% 증가하였다. 이중 비사업용 화물차의 적재효율은 기존 34.5%에서 43.22%로 8.72% 증가하였고 사업용 화물차의 적재효율은 기존 47.4%에서 51.35%로 3.95% 증가하였다.
- 조사대상 전체 화물차의 **적재통행율³⁾**은 63.95%로 기존(2001년) 조사에 비하여 7.35% 증가하였다. 이중 비사업용 화물차의 적재통행율은 기존 57.3%에서 64.60%로 7.30% 증가하였고 사업용 화물차의 적재통행율은 기존 49.4%에서 57.54%로 8.14% 증가하였다.
- 조사대상 전체 화물차의 **적재시간율⁴⁾**은 62.08%로 기존(2001년) 조사에 비하여 6.08% 증가하였고, 이중 비사업용 화물차의

1) 평균적재율 : 화물자동차의 적재통행시 적재능력에 대한 실제 적재한 중량의 비중

2) 적재효율 : 평균적재율에 거리개념을 반영한 지표로서 화물자동차의 적재능력 및 총 운행 거리에 대한 통행당 톤·km의 합 비중

3) 적재통행율 : 화물자동차의 총 통행수 중에서 적재상태의 통행비중

4) 적재시간율 : 화물자동차의 총 통행시간 중에서 적재상태의 통행시간비중

적재시간율은 기존 55.9%에서 62.00%로 6.10% 증가하였고, 사업용 화물차의 적재시간율은 기존 56.7%에서 62.81%로 6.11% 증가하였다.

- 조사대상 전체 화물차의 적재거리율⁵⁾은 60.65%로 기존조사에 비하여 4.65% 증가하였다. 이중 비사업용 화물차의 적재거리율은 55.9%에서 60.54%로 4.64% 증가하였고 사업용 화물차의 적재거리율은 57.3%에서 61.57%로 4.27% 증가하였다.

□ 국가교통센서스와 별도로 수행된 지역간 여객통행 실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'04년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역간(167개 특별시·광역시·시·군간) 1일 통행인구는 총 1,309만명으로, '03년 1,289만명에 비해 1.52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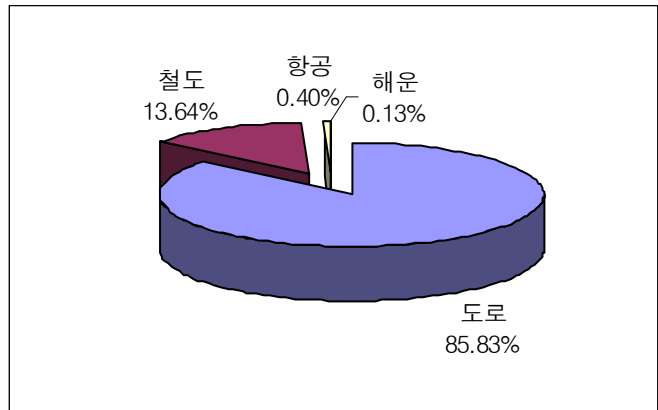
- 이 중 승용차를 이용한 1일 통행인구가 996만명으로 전년 대비해 1.34%(13만명) 증가한 것을 비롯해 버스 0.33%, 철도 3.73%, 해운 5.10% 증가한 반면, 항공은 13.15%(6천명)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KTX 운행(2004년 4월)으로 인해 철도 통행은 증가하고 항공 통행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.

- 수송분담율의 경우 도로가 85.83%(승용차 76.10%, 버스 9.73%), 철도 13.64%, 항공 0.40%, 해운 0.13%로 나타났다. '03년 분담율과 비교해 보면 도로분담율은 0.25% 감소한 반면, 철도분담율은 0.31%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- 통행거리를 고려한 분담율(인·km)은 도로 81.33%(승용차

5) 적재거리율 : 화물자동차의 총 통행거리 중에서 적재상태의 통행거리비중

69.93%, 버스 11.40%), 철도 15.59%, 항공 2.87%, 해운 0.21%의 순으로, '03년에 비해 도로는 4.16% 감소한 반면, 철도는 3.88%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

- 또한 통행 목적별 분포를 보면, 업무통행이 498만 명으로 38.08%, 귀가통행이 327만명 25.06%, 여가통행이 232만명 17.75%를 차지해 지역간 주요 통행 목적으로 분석되었다.

